

순창군, 음식물쓰레기 확 줄었다

5월말 전년 대비 19톤 감소 RFID 종량기 확대 설치 음식물30% 줄이기 효과

순창군의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492톤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인 511톤에 비해 19톤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최근 3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온 걸 감안하면 큰 성과다. 실제 201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77톤이던 것이 2015년에는 497톤, 2016년에는 511톤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군은 이처럼 급증하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올해 최초 급감세로 돌아선 것은 음식물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은 올해 음식물 쓰레기 30%줄이기를 위한 클린순창 만들기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요령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물론 주민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전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 시켰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거두고자 가정용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2,240대를 보급,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26대, 업소용 감량기 3대, 아파트용 감량기 1대를 보급했다.

또 관내 아파트 단지에 RFID 종량기 1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아파트 단지의 대형 감량기 시범 운영이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아파트용 음식물 감량기를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순창군의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492톤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인 511톤에 비해 19톤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식물 쓰레기 감량기 26대, 업소용 감량기 3대, 아파트용 감량기 1대를 보급했다.

또 관내 아파트 단지에 RFID 종량기 1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아파트 단지의 대형 감량기 시범 운영이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아파트용 음식물 감량기를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름철 과일절질 등 음식물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실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 운영 따라... "지역별 배출일자 준수해야"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체 운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부터 남원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안정적인 슬러지자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오천로 1036-207)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본 시설의 가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비롯하여 생산된 바이오 가스 활용으로, 연간 7억여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6월 한 달 동안 관내 음식물 778개소에 음식물 수거용기 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세척의무를 부

여하여 청결관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전단지 2만부와 팜플렛 2만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과 업소에 배부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지난 5월2일과 지난 23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별 배출일자 및 시간(전날 밤 혹은 새벽 4시 이전)을 준수하여, 규격별 적정 수거침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채소류 중에는 양파,마늘,생강, 옥수수껍질, 옥수수대가 있으며 과일(견과)류 중에는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와 호두, 밤, 땅콩 등의 딱

딱한 껍데기가 있다.

또 육류의 뼈나 털, 어패류 껍데기, 달걀의 껍데기와 티백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특히 양파망, 돌맹이, 쇠붙이와 같은 이물질은 음식물 처리시설 내 기계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꼭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한편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준수는 깨끗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물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나 자신의 참여가 남원시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약 체결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 치유농장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기술지원과 성공사례확산을 통해 전국적 성공모델로 떠오를 전망이다.

순창군(군수 황숙주)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황정환)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농업에 치유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등과 연계해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농업의 새로운 성장발전 분야다.

순창군은 2015년부터 치유농업 일환으로 대대적 치유농장을 본격 육성하고 있다. 이미 지역의 19개 농장을 치유농장으로 선정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장주에 대한 교육과 간담, 참구, 식기류, 포장재 등 운영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했다.

특히 순창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당노·고혈압·비만 등의 치유를 위한 삼차림 6종과, 발효소스 5가지 맛 11종 등 치유 음식개발도 완료

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

치유의 벗이란 공동브랜드를 통해 순창 치유농장 마케팅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태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유농장 운영모델, 치유 프로그램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 개발기술을 농가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치유농업 성공사례 도출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과 우수인력 양성, 정보 및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치유농장의 의료적 효과 구명을 위해서 보건의료원 전문 의료진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을 비롯해 신준규 기획조정과장, 정명일 도시농업과장 등 관련자 10여명과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 치유농업연구회 김정숙회장 등 군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순창 대대적 치유농장을 전국적 성공모델로 성장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이환주 시장, 가뭄대책 현장 방문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뭄 극복을 위해 남원시는 가뭄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관정개발, 하상골작 등 가뭄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이환주 시장은 최근 가뭄 극복을 위한 대형 관정개발 현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들을 위로 격려 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가뭄피해 대책관계자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재 확보된 예비비와 한발대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관정개발, 하상골작, 저수지준설 등 12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뭄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농업인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환주 남원시장은 가뭄피해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성을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초·중·고 건강검진

순창군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을 완료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 건강검진은 보건의료원이 지난 3월 28일부터 최근 6월 13일까지 총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및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해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결과 비만학생 123명(14.6%)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진 결과를 학교에 안내했다.

군은 올해 검진을 진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3년 후 다시 재검을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6·25기념식·안보결의대회

임실군과 6·25참전유공자회 임실군지회(회장 배양주)는 25일 제67주년 6·25 기념식 및 안보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심민 군수, 문영두 군의장, 보훈단체 및 기관사회 단체장, 유공자회, 보훈단체 및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전유공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호국영웅의 숭고한 뜻을 계승했다.

또한 남·북 안보결의 이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새기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